



산과 절은 돌이 아니다. 유엔은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해 날로 훼손되어 가는 산을 보전하는 길을 모색한다. 사진은 사진가 이인숙씨 작 '관동사 용선대'.

고찰은 산과 함께 법맥 잇고...

UN이 정한 '2002 세계 산의 해'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최로 출범식을 갖고 산림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산간 공동체들의 문화유산 및 환경 보전을 호소했다.

인구의 절반 산서 몰연어

유엔이 이례적으로 '산'을 연중 캠페인 주제로 정하고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인류의 어머니인 산이 그만큼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산의 환경이 벌레와 오염, 수계(水系) 파괴, 토착적 전통 소멸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구 60억 명 가운데 약 10분의 1이 산악 지대에 살고 있으며 절반 가량이 30억 명은 산에서 마실 물을 얻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산 훼손도 가속화되고 있다. 1950년부터 40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78개에서 290개로 늘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인구는 2배 증가했지만 물 수요는 6배 늘었다. 이 때문에 도시 인근 산들은 물 수요를 위한 댐 건설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인류의 농경 생활 이전에는 약 62%였던 지구의 산림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FAO 조사로는 절반 수준인 약 34%에 머물고 있다. 산림 면적이 국토 면적의 64%에 달하는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9년 642만 2773ha였던 우리 나라의 산림 면적이 2000년에는 서울 남산의 26배인 7873ha가 줄어들었다. 절은 예로부터 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다. 큰 절 이름 위에는 으레 산 이름이 붙었고, 스님들이 스스로를 '가야산인' '금정산인' 등 산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산과의 친화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절에는 산감(山監)이라는 소임이 있었고, 산불이라도 나면 학인들까지도 산불 진화에 나서곤 했다.

한국 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유엔의 '세계 산의 해' 지정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 스님)를 구성하고 산림 보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절교 환경 의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일환으로 절교환경연대에 의뢰해 전국 사찰림을 파악하고 주요 나무 종류와 보존 상태 등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절교환경연대(상임 대표 수경 스님)도 지난해 11월 오대산 지역의 생태, 문화 환경을 조사한 데 이어 울해는 설악산과 태백산에 있는 절과 주변 지역에 대해 생태 문화 조사를 실시한다.

조계종, 전국사찰림 조사

유엔의 '2002 세계 산의 해' 출범식에 맞춰 미국, 독일 등 34개국어 이미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우리 나라도 산림청 주관으로 '산! 더불어 사는 터전'을 주제로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월 중 웹사이트 개설에 이어 4월부터 기념식과 학술행사, 산림 현장 선포 등의 기본 행사 외에도 '산을 찾아서' '백두대간을 건강하게' '살기 좋은 산촌' '아름다운 산과 숲' 등 4대 기획 행사를 연중 펼쳐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올 한 해에 그치는 단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2002년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올라보이드 카메라를 보며 신기해하는 성철 큰스님.

사진으로 읽는 성철 큰스님

3~8일 부산 영광갤러리

사진가 주명덕 씨가 3일부터 8일까지 부산 영광갤러리에서 성철 큰스님(전 조계종 종정)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백일법문을 하면 모습에서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는 등 수행자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시대를 살다간 스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성철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최근 발간한 <성철스님 시봉이야기>에 담긴 것들이다. (051)816-9500

관음보살 6현신 중 하나

불교와 말(馬)

올해는 임오년(壬午年, 말의 해). '말' 하면 박력과 생동감이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신라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천마와 박해거세 탄생 신화, 고구려 시조 주몽 신화에서 보듯 우리 민족에게 말은 제왕의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상스러운 동물. 초자연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말은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관세음보살이 육도(六道)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는 성염(千手) 마두(馬頭) - 십일면(十一面) - 준제(準提) - 여의륜(如意輪) 관음 등 육관음으로 현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생을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이 바로 마두관음보살이다. 유일하게 분노한 모습을 한 관음상으로, 머리에 말의 머리를 이고 있어 마두대사(馬頭大士) 혹은 마두명왕(馬頭明王)이라고도 부른다. 말의 머리를 이고 있는 것은 천룡왕의 보마가 사방을 달리면서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생사의 바다를 누비면서 천마(千龍)를 항복시키는 큰 위신력과 정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무명의 무거운 업장을 타는다는 뜻도 있다.



십이지신은 십이신장으로 불교에 수용되었다. 그림은 십이신장 중 말신장(만병승남작).

말띠 해에 태어난 불교계 인물로는 신라 말 고승으로 선운산(禪門) 9산 중 사자산(獅子山)의 제2조인 진효절종(826-900), 고려 숙종의 넷째 아들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였던 원명국사 정엄(1090-1141), 일제강점기 때 한국 불교의 일본 조동종 편입에 맞서 임제종을 세웠던 박한영(1870-1948)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말(馬)의 해에 관한 말(馬)

말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은 우리네 삶과 밀착된 것들이 많다.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 것을 비유해 '말 타면 경마 잘하고 싶다'고 했고, 고생스러워도 살아 있다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했다. '말을 기르는 사람은 닭, 돼지를 돌보지 않는다'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성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일러 '말은 노상 쉴 생각만 한다'고 한다. '말 꼬리에 쉬쉬라 따라간다'는 남의 세력에 의지하여 기를 펴고 사는 것을, '말도 부끄러우면 땀을 흘린다'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를 반성해야 함을 견책할 때 쓰는 말이다.

壬午年 불교小史

- ▲622년(신라 진평왕 44) 7월, 신라 사신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상 1구와 사리, 금합 등을 전해 줌.
- ▲1102년(고려 속종 7) 5월 12일, 왕이 현화사에 거동하여 은으로 쓴 <유가변양론>이 완성된 것을 경축함.
- 9월, 왕이 신조사에 왕자하여 대장회(大齋會)를 베풀어 낙성함. 대궐에서 짐까지 집을 끼고 수만 개의 등불 켜.
- ▲1282년(고려 충렬왕 8) 7월 4일, 공주가 병이 들어 법도당을 베풀.
- 10월 16일, 왕이 경명암엔 선사을 내 전으로 맞아들여 승경당에서 인왕도상을 베풀고, 개경 광명사에 머무르게 함.
- 12월, 인가(迎駕)가 정황공주(貞和宮主)의 창으로 송 나라에 가서 대장경을 찍어와 강화 전등사에 봉안함.
- ▲1342년(고려 충혜왕 8) 속리산 법주사에 자장국존(慈淨國尊) 보명탑비(普明塔碑)가 건립됨.
- ▲1402년(조선 태종 2) 4월, 서운관의 권의로 전국 7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의 땅의 조세를 영원의 군자감(軍資監)에 귀속시킴. 무학자초(無學自超)가 회암사의 감주(監主)가 됨.
- ▲1462년(조선 세조 8) 8월 21일, 강경도감 <농업경연회> 10권 조판 간행.
- 10월, 새로 만든 흥천사의 종이 완성됨.
- ▲1642년(조선 인조 20) 허응보부(應普而의) '수월도당 공화화사 여환인주 공중문답'이 지선(智顯) 등에 의해 증간됨.
- ▲1762년(조선 영조 38) 6월 27일, 용담조판(龍潭 潭) 실상사에서 입적.
- 승암의천(勝巖義顯) 입적.
- ▲1882년(조선 고종 19) 6월, 훈곡군이 경의(京界) 각사(各寺)를 불태움.
- 9월 9일, 김법륜 출생.
- 9월 10일, 고성 유정사 중수를 위해 공평할 500정을 발광.
- 일본 일련종 육일 묘, 편산에 정묘사 창건.
- 우연달선(愚緣達善)이 불에 탄 금강산 유림사를 3년 동안 복구함.
- ▲1942년 조계종법 발표.
- 김법륜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에서 옥고를 치름.

권현진 기자 jenny@buddhista.com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동신전통목공

사찰문 전문

대표 백영목 합장

■ 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동 523 (직지사 검문소 뒤)
전화 : 054)432-1312
공장 : 054)432-8121
핸드폰 : 011)535-700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회장 오신재

대 중 일 동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전화 : 061) 284-1771
팩스 : 061) 284-177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우룡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
팩스 : 053) 765-1600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

심봉회 · 심안회
심원회 · 심주회

회원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
053) 768-8008
팩스 : 053) 765-1600